

“경내지 공원서 제외 안 되면 승려대회 개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서 MB정부 압박... 2일 통도사, 1500여 스님 ‘한 목소리’

국립공원에 편입돼 40여 년간 이중 삼중의 법적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불권부당함을 감수해야 했던 조계종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전국 사찰에는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화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을 지지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성명도 이어지면서, 자연공원 정책을 둘러싼 불교계와 정부의 오랜 갈등이 폭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 신홍사 대홍사 선운사 등 조계종 25개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스님 등 1500여 스님들이 참석해 결의문과 대국민호소문 등을 발표했다.

행사명에서 드러나듯 조계종의 요구는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라”는 것.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교계와 관련한 중립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맞물리며 MB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40여 년 한결 같은 조계종의 주장이 이번에는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 명칭부터 잘못

1967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건설부는 ‘공원법’을 제정해 천년고찰들을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때부터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법주사 등 주요 사찰이 공원화, 관광지화 됐고, 사찰의 자주권과 재산권의 침해가 시작됐다. 종교 본연의 수행과 포교의 권리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국립공원 제도 시행 초기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1500여 스님들이 행진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중단과 불교계 관련 다중규제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터 불교계는 반발해왔다. 1967년 당해부터 1971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청담 스님이 정부에 ‘공원법 시행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만도 1986년 9월 합천 해인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해 1999년과 2002년, 2007년 계속해서 범불교대회와 결의문 발표가 줄어왔다.

이날 결의대회도 청담 스님이 자연공원법 전신인 공원법 제정 당시 “공원법 시행은 종교의 존엄성과 사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찰경내지의 공원 지정을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조계종이 정부에 항의하는 동안

에도 사찰은 공원화되고 명산은 유해지로 변질됐다. 산과 사찰이 함께 망쳐지면서 문화재가 단순히 죽어 버린 옛 것으로 폄하된 것은 당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2008년 기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만 국보 38점, 보물 142점 등 749점의 문화재가 있다. 이들 문화재를 비롯해 국립공원에는 39개 사찰이, 국립·도립·군립공원 전체에는 150여 사찰이 있어 자연공원법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셈이다.

#위법망구 각오, 역량 총결집

이날 행사에서 1500여 주지스님

들은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서 제외할 것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계에 대한 다중규제의 일원화 △(가칭)문화유산법 제정과 문화유산지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사찰 토지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사역도를 각 사찰 입구해 게시하고, 전국 사찰에 결의사항 등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과의 연대하는 등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중단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스님들은 자연공원법 개정 등 이명박 정부의 불교계 공약이 실현되지 않으면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범불교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산문 폐쇄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문화유산지역지정이 해답

불교계의 반응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결의대회에 앞서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정부와 협의체 구성이나 어떻게 해결하자는 안에는 현재까지 의논도, 합의도 된 바가 없다”고 말

해 환경부의 발표가 일방적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이날 법어에서 “사찰이 통일된 법을 엄격히 준수해 자연 훼손이 없도록 소중히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정부와 상당 수준 조율됐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사찰경내지가 자연공원에서 해제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조계종이 최근 공개한 사찰사역도에 따르면, 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사 소유 토지는 39%, 문화경관적 이용 가치를 따지면 가야산 국립공원의 80%에 달한다. 이는 속리산 법주사나 오대산 월정사, 설악산 신홍사 등 국립공원 내 조계종 사찰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 면적만 따져도 자연공원 중 2억 여 평(㎡)이 조계종 사찰경내지다. 때문에 사찰경내지가 자연공원에서 제외된다면 국립공원 자체가 무색해진다.

결국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사찰경내지를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해법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공약대로 불교계를 중립규제하는 법들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결의대회 하루 전날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MB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불교계와 잇단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7·2 조계종 본·말사주지결의대회로 드러난 자연공원법 개정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에 심은 갈등의 씨앗을 화해의 열매로 수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불교계와 MB정부가 선연이 될지, 계속된 악연으로 남을지가 40여 년 불교계 숙원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 배척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

北 조불련 자연공원법 개정 비난 성명

6월 27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가 남한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이를 7월 1일 양산 통도사에 팩스로 보내왔다. 조불련은 “남한의 자연공원법 개

정 추진은 불교를 배척하고 신성한 도장(道場, 도량)에 막대한 해를 끼치려는 또 하나의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중요차별 책동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관례에 어긋나게 담화문은 북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이라며 “담화문에 대해 사전에 전달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 아무 대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법구경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현대불교 @ 자리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h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속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익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성물크기(5.5x9cm) 규격용 2매
용도: 상량식, 불사 복장익식, 영가전도
문의 02)722-1850

기초법(유엔)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6
대안불교조계종 전국교구 소속신 용문사

얼레미와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감사의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법하의 존체청안 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 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음력 윤 5.3)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제2담화정사에서 봉행한 일봉 서경보(一鵬 徐京保)존자 탄신 96주년 및 원적 13주기 추모대제와 세계평화 및 남북평화통일기원대법회와 세계불교법왕청 제2회 범왕 추대법회에 공사간 다량하심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추모와 축하의 예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우선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교텔레비전 방송시간안내

1차 - 6월 30일 오후 2시 30분 | 2차 - 7월 2일 오후 7시 30분 | 3차 - 7월 4일 오후 4시 10분

불기 2553(서기 2009)년 6월 일

세계 불교 고승 총연합회	원로의장	신인왕
일봉존자탄신96주년및원적13주기추모대제와	봉행위원장	김원각
세계평화남북평화통일기원대법회	이사장	담화 이준영 합장

